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 編輯人 宋 景 太
印刷人 金 政 坤
編輯局長 裵 永 斗

發 行 所
社團法人 韓國生藥協會
<우편번호130－06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제기동 1051
☎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협會指針>
農民所得增大
生産輸出增大
國民保健向上

會 長 訓
1. 最大의 봉사
1. 最大의 협동
1. 最大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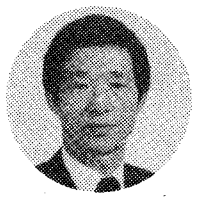
(無料配布)

中央共販場
☎ 967－4984
☎ 965－9551

94年度 新年辭

급변하는 세계의 새로운 경제 질서속에서 우리 생약인의 국제화는 물론 우리생약의 국제화를 위해 함께 더욱 정진하면서 開放과 國際化에 따른 초유의 역경을 발전과 도약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할것입니다. 〈甲戌元旦〉

생약의 種子와 생산을 재검토
경쟁력 있는 生藥 생산에 노력


◇ 宋景太 會長

甲戌年 새 아침을 맞아 生藥 業界 諸賢의 健勝하심과, 家庭에 만복이 함께 하시길 祈願드립니다.

지난해는 인류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사건들이 참으로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兩極化된 東西의 Ideorogy가 무너졌고, 중국마져도 탈 이념의 세계로 굮을 내 맡긴 채 무섭게 질주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美洲와 아시아가 불럭화하고, 서로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등, 세계 모든 나라들이 이념보다는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국가 경쟁력 향상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서로의 국경을 허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한국은 새로운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사회 각 분야에서, 가히 혁명적이랄 수 있는 대변화와 혁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속에서의 새로운 바람은, 우리 생약업계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으며, 이미 그 조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U·R』이 타결됨에 따라 조건없이 세계의 시장속에 내 던져진 우리 경제의 전 부문들이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쌀을 위시한 농산물과 生藥은 가장 타격이 큰 부문으로서, 이는 단순한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닌 국민의 정서적인 면까지 위협하는 충격이라 國基를 뒤흔드는 가히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開放과 國際化가 거스를 수 없는 현실이라면, 낙담과 좌절만 하고 있을수는 없으며 오히려 이 초유의 역경을 발전과 도약의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 앞으로는 종자전쟁이 극심하리라 예상되며, 순수한 종자는 바로 엄청난 재산이 됨을 감안 우리 생약계에서는 국내의 유수한 대학과, 연구소, 국가 기관과 연계하여 産·官·學의 협동으로, 우리 생약의 전 부문을 種子에서부터 생산까지 재 검토하여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우수한 生藥을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둘째 : 생산자와의 물심양면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상호 의식의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정확한 정보제공에 따른 경쟁력 있는 생약의 권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상호노력, 하한가 생산 원칙에 의한 계약재배의 확대실시, 공개입찰등을 통한 유통의 혁신 및 제도적인 보완을 이루어 생산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신바람나는 생산을 유도할수 있도록, 양자간의 정기적인 회의 및 합숙 토론회등을 통해 상호의 의식 변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째 : 그간 『생약협회』에서 임직원 및 전 회원들의 노력으로 협회 기금의 효율적 투자를 통한 경쟁력 提高 방안을 마련코자 합니다.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생약의 종류, 특성, 생산량, 향후의 전망을 조사 분석하고 우리생약과의 면밀한 비교 검토를 통해 장래의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생산자, 생약인을 선발하여 연구, 교육 시키고, 수출 시장의 개척을 위한 조사, 홍보등 미래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이제 세계는 그야말로 국경이 없는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오직 우수하고, 값싼 생약만이 판매되는 단일 시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동양의 생약을 근거로 한 총체적 의료체계는 지금 서양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으며, 그들의 분석적인 과학 기법에 더욱 그 효능이 입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한국의 금수강산에서 생산되고 있는『인삼, 당귀, 천궁, 오미자, 산수유, 황기등 각종 우수한 생약재는 이미 고래로부터 성가를 인정받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제 우리 생약인들은 더욱 분발하여 전통의 맥을 발전적으로 이어받음은 물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가장 경쟁력있는 생약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이 급변하는 세계의 새로운 경제질서 속에서 우리생약인의 국제화는 물론 우리 생약의 국제화를 위해 함께 더욱 정진 합시다.

생약인 諸賢의 康健과 업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드립니다.

會長 宋景太

連載 韓方순례 〈46〉

맛을 통한 진단

(1) 오미(五味)는 입에 들어가면 각기 가는 곳이 있다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리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그 자각증상으로 입맛이 변하는 상황의 민감성을 앞서 이야기하였고, 이 맛도 인간의 생명활동의 중요점임을 강조한 바 있다.

건강을 유지코저 할 때 보약을 복용한다고 하자. 약을 일반적으로 쓰기 때문에 미식의 생명활동을 일부 손상시키는 것일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제는 식품을 통한 건강요법을 체득하면 미식의 손상도 보완되리라 믿는다.

그렇다면 미각을 통한 진단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사람이 감각할 수 있는 맛은 쓴것, 신것, 단것, 매운것, 짠것 등의 오미(五味)가 대표적이다.

이들의 맛은 인체가 건강할 때 즉, 내장기능에 이상이 없을 때에는 입에 다 맞게 조화되어 있다.

그러나 만일 몸상태에 이상이 생기면 맛이 어느 편으로 편중되어 이로 인해 병의 부위를 판별해낼 수 있게 된다.

커피는 곰복에 마시든가 너무 지나치게 과음하면 식욕부진의 원인이 된다.

이는 위장이 쓴맛에는 견디어 낼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단맛은 인체의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그러므로 단맛이 위장안에 오랫동안 머물면 위장활동을 무디게 하여 제반 소화작용에 장해를 주기 때문이다.

옛부터 전해내려오는 「오미가 입에 들어가면 각기 가는 곳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병난것을 알게 된다」고 한 말을 잘 활용해야 하겠다.

즉, ①쓴맛은 심장과 연관을 가지며, ②신맛은 간장을 찾아가고, ③단맛은 비장속에 머무르며, ④매운맛은 폐장과 관련이 있고, ⑤짠맛은 신장을 건드린다고 한다.

(2) 쓴맛을 통한 진단

모든 음식물이 입에 들어가 쓰게만 느낄 때 또는 입 자체에 쓴맛이 돌때 심열이 있든가 아니면 담이 약하여 몸과 마음이 상기된 상태이다.

심열일 경우에는 용담사간탕(龍膽瀉肝湯)—柴胡, 黃芩, 生甘草, 人蔘, 天門외)을 복용하면 좋다.

謹 賀 新 年

법사인단 한국생약협회

회 장 송 경 태
수석부회장 이 종 용
부 회 장 임 연 구 학
황 조 정 롱
황 인 철
박 만 종
이 대 연
이 사 남 응 구
배 명 규
박 만 황
문 정 용
이 옥 봉
김 대 철
서 웅 종
김 재 연
신 영 구
박 종 학
민 재 용
박 형 황
정 길 만
유 진 동 조
김 창 인
종 섭 연
김 영 구
정 종 학
이 재 용
강 종 봉
이 대 철
김 웅 종
함 옥 연
삼 정 구
문 명 학
영 만 용
이 조 봉
승 인 철
용 연 종
김 구 연
훈 학 구
한 용 학
완 봉 용
석 철 봉
섭 종 철
근 연 종
모 구 연
걸 학 구
운 용 학
부 봉 용
균 철 봉
한 종 철
활 연 종
달 구 연
문 학 구
권 용 학
규 봉 용
황 철 봉
용 종 철
종 연 구
연 구 학
구 학 용
학 용 봉
용 봉 철
봉 철 종
철 종 연